

# 《詩經》에 표현된 '생산노동'의 종류와 그 예술성

崔宇錫\*

## <목 차>

1. 서론
2. 《詩經》 속에 표현된 '생산노동'의 종류
3. 《詩經》 속 '노동' 표현의 특색과 예술성
4. 결어

## 1. 서론

중국의 고전 시가 전통에서 勞動을 주제로 삼거나 제재로 노래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陶淵明(365-427)이 田園으로 돌아와 직접 耕農을 하며 그 삶을 그대로 시로 읊은 소위 田園詩 속에서 노동의 묘사 등이 다소 주목을 받았을 뿐이며, 唐代에 들어와 소위 山水田園詩는 하나의 流派를 이루며 발전 했을 지라도, 이 시기의 시 속에는 이미 文人의 정신세계가 투영된 소위 '意境'을 전달하는 작품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직접 耕農을 하며 이를 시로 읊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 시가의 源流인 《詩經》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 가운데에는 집단으로 펼치는 農耕의 장면, 부녀자들이 들판에서 나물을 뜯는 採集 활동, 야생의 동물을 사냥하는 狩獵 혹은 물고기를 잡는 漁撈의 장면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실, 현실 사회를 반영한 사실문학의 先河로 여겨지는 《詩經》의 내용

\* 우송대 중국학부 조교수

속에, 민간의 경제생활과 가장 긴밀히 관련을 맺는 農耕의 각종 모습들, 혹은 부차적인 경제 활동인 수렵, 채집, 어로 등의 각종 생산 노동이 시 속에 표현된 것은 아마도 자연스런 일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詩經》 속에 표현된 노동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 노동의 표현이 어떠한 예술성 내지는 문학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특히 노동의 예술성 부분에서는 노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될 '生産物'에서 파생된 '功利性'을 본질로 삼는 특수한 審美觀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런 연유로 본 논문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소위 '勞動'이라는 것은, 경제 혹은 물질의 현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가져 올 수 있는 '生産勞動'의 종류로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詩經》 속에서 표현된 노동의 종류 가운데 부역, 요역 혹은 군역 등에서 파생된 노동은 포함 하지 않기로 한다.

## 2. 《詩經》 속에 표현된 '생산노동'의 종류

### (1) 採集

《詩經》 속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노동의 종류는 들판, 물가 혹은 밭에서 각종 풀, 약초 혹은 꽃 등을 '採集'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들판에서 苳菜(마름풀)을 채집한다던가, 혹은 卷耳(도꼬마리풀)을 캔다던가 하는 채집활동이 《시경》 곳곳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채집은 주로 집단 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한 남성 보다는 부녀자 혹은 젊은 여성의 손에서 이루어지며, 그 채집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 하다는 것이다. 먼저, <周南·芣苢>를 예로 든다.

采采芣苢, 薄言采之      질경이를 캐고 캐세, 캐어 오세

采采芣苢，薄言有之	질경이를 캐고 캐세, 들판 캐세
采采芣苢，薄言掇之	질경이를 뜯고 뜯세, 뜯어 오세
采采芣苢，薄言捋之	질경이를 뜯고 뜯세, 들판 뜯세
采采芣苢，薄言袺之	질경이를 캐고 캐어, 치마 앞에 싸오세
采采芣苢，薄言撻之	질경이를 캐고 캐어, 앞치마에 싸오세 <sup>1)</sup>

屈萬리는 “이것은 부인들이 질경이를 뜯는 것을 읊은 시이다.”<sup>2)</sup>라고 했다. ‘芣苢’는 ‘車前’이라고도 부르며, 임신 했을 때 약용으로도 쓰인다. 朱熹(1130-1200)는 《詩集傳》에서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서 집안이 화평하니, 부인이 일이 없어 서로 더불어 이 질경이를 뜯으면서 그 일을 읊어 서로 즐거운 것이다.”<sup>3)</sup>라고 언급했다. 평화로운 들뜰에서 질경이를 캐는 여인네들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데, 이 採集이라는 노동이 시 속에서 즐거움과 화평의 이미지로 대변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시 외에도, 《시경》 속에는 각종 나물, 약초 혹은 과실 등을 따는 장면이 곳곳에서 보인다. 특히 《시경》 속에서 ‘캐다’ 혹은 ‘따다’의 행위에 해당하는 ‘采’자가 포함 된 篇名을 모두 열거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篇名		‘采’의 대상	계	
國風	<周南>	<關雎>	荇菜(마름풀)	14
		<卷耳>	卷耳(도꼬마리풀)	
		<芣苢>	芣苢(질경이)	
	召南	<采芣>	芣(다복썩)	
		<草蟲>	蕨(고사리), 薇(고비)	
		<采蘋>	蘋(개구리밥), 藻(마름풀)	
	邶	<谷風>	葑(순무), 菲(무)	
鄘風	<桑中>	唐(새삼), 麥(보리), 葑(순무)		

1) 본 논문에서의 모든 《詩經》 원문 해석은, 김학주 譯著, 《시경》(서울: 명문당, 2007)의 해석을 따름.  
 2) 屈萬里, 《詩經詮釋》(臺北: 商務印書館, 1981), 14쪽: “此詠婦人採芣苢之詩.”  
 3) 朱熹, 《詩集傳》(南京: 鳳凰出版社, 2007), 7쪽: “化行俗美, 家室和平, 婦人無事, 相與采此芣苢, 而賦其事以相樂也.”

		<載馳>	𨾏(등에)	
	<王風>	<采葛>	葛(쑤), 蕭(쑤), 艾(약쑤)	
	<魏風>	<汾沮洳>	莫(나물), 桑(뽕), 蕢(쇠귀나물)	
	唐風	<采芣>	芣(감초), 苦(씀바귀), 葍(순무)	
	秦風	<蒹葭>	蒹葭(갈대)	
	邠風	<七月>	蘩(다복쑤), 荼(씀바귀)	
小雅	鹿鳴之什	<采薇>	薇(고사리)	11
		<出車>	蘩(다복쑤)	
		<杕杜>	杞(구기자)	
	南有嘉魚之什	<采芣>	芣(시화)	
	鴻鴈之什	<我行其野>	蓬(소루쟁이), 蒿(예무)	
	節南山之什	<小宛>	菽(콩)	
	谷風之什	<北山>	杞(구기자)	
		<小明>	蕭(쑤)	
	魚藻之什	<采菽>	菽(콩)	
		<采綠>	綠(녹두), 藍(남초)	
	<瓠葉>	瓠葉(박잎)		
大雅	湯之什	<桑柔>	桑(뽕)	1
頌	魯頌	<泮水>	芹(미나리)	1
總計(篇數)				27

위의 통계를 통해, 《詩經》 중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6편을 제외한 305편 가운데 27편(약 9%)의 내용에 '캐거나' 혹은 '따는' 노동의 행위가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닌데, 이는 백성들의 경제 활동 내지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쉽게 이루어지는 채집의 활동이 시가 속에 자연스럽게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채집의 노동이 <國風>과 <小雅>에서만 집중적으로 보이고, <大雅>와 <頌>에서는 각각 <桑柔>, <泮水>의 한편씩에서만 눈에 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작품을 민간에서 수집한 <國風>과 민간의 작품을 일부에서 적극 수용한 <小雅>에서는 민간 아녀자의 일상생활을 노래한 민가를 적극 반영했지만, 주로 궁중의 '朝會'에서 사용되던 음악에서 그 來源을 찾는 <頌>

과 <大雅>에서는<sup>4)</sup> 민간의 채집 행위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밖에, '采'의 행위는 없지만 採集의 노동을 묘사한 작품으로는, 칩덩굴을 베어가는 <國風·葛覃>, 복숭아와 대추를 따먹는 장면을 묘사한 <魏風·園有桃> 등의 작품이 더 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채집'의 노동을 반영한 작품 속에는 그 노동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周南·葛覃>에서는 “잎새 더부룩한데, 그것을 잘라다가 찌내어, 고운 칩베 굵은 칩베 짜, 배옷 지어 입으니 좋구나.(維葉莫莫。是刈是漚，爲絺爲綌，服之無斁)”라고 읊어 칩덩굴을 따다가 부지런히 칩베를 짜고 배옷을 지어 입는 일련의 노동을 묘사했으며, <召南·采芣>에서는 “연못가 물가에서 다복쑥 뜯어, 임금님의 제사에 그것을 쓰네.(于以采芣，于沼于沚。于以用之，公侯之事。)”라고 읊어 “제후의 부인이라면 귀한 신분이지만 제사에 쓸 제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몸소 들로 나가 쑥을 뜯어오는”<sup>5)</sup>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 풀들의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苜蓿(마름풀), 卷耳(도꼬마리풀) 등은 식용으로 쓰였으며, 芣(다복쑥), 蕭(쑥) 등은 제사용으로, 荼(감초), 杞(구기자) 등은 약용으로, 綠(녹두), 藍(남초) 등은 염색재료로, 葛(칩덩굴), 桑(뽕나무) 등은 옷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 이밖에, <召南·采蘋>에서는 “마름풀 뜯으러 저 길가 개울로 가세. 어디에 담을까? 가마솥 옹술에 삶지.(于以采藻，于彼行潦。于以盛之，維筐及筥。)”라 읊고, <小雅·采菽>에서는 “콩을 따서, 콩을 따서, 모진 광주리 둥근 광주리에 담네.(采菽采菽，筐之筥之。)”라고 읊어 채집할 때 사용한 도구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였다.

4) 葉慶炳, 《中國文學史》(臺灣, 學生書局, 1994년, 6쪽): “大抵頌之詩多出自朝臣或樂官之手, 風之詩多採自民間, 雅之詩則二者兼而有之.”의 언급과 朱熹, 《詩集傳》(115쪽): “正小雅, 燕饗之樂也, 正大雅, 會朝之樂.”을 참조.

5) 김학주 譯著, 《시경》(서울: 명문당, 2007), 70쪽에서 인용.

## (2) 耕農

일반적으로 《시경》의 내용 가운데 소위 農事詩로 알려진 것은 약 10수가 있다.<sup>6)</sup> <國風> 중의 <邠風·七月>, <小雅> 중의 <楚茨>, <信南山>, <甫田>, <大田>의 4수 그리고 <周頌>가운데의 <臣工>, <噫嘻>, <豐年>, <載芟>, <良耜>의 5편이 바로 그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耕農의 장면을 묘사한 작품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採集의 노동과는 정반대로 <국풍> 보다는 주로 <小雅>, <大雅> 그리고 <周頌>에서 집중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農耕을 국가의 중요한 근간 경제로 삼았던 周代의 民族이 농업을 가장 숭상했고, 이러한 연유로 농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先祖의 덕을 頌美하거나 그 선조를 제사지내는 내용들을 <周頌>과 <二雅>에서 적극 표현했으며, 이러한 연유로 耕農의 묘사가 이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시경》 속에 보이는 이른바 ‘農事詩’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농사와 관련된 祭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耕農에 관한 노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耕農의 노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周頌·載芟>를 예로 들 수 있다. <毛詩序>에서는 “<載芟>는 봄에 밭 갈며 사직(社稷)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sup>7)</sup>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후반부에서 술과 감주를 빚어 제사를 지내는 대목 이전 까지 耕農의 노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載芟載柞，其耕澤澤	풀을 베고 나무를 뽑고, 필씩필씩 땅을 갈아엎네
千耦其耘，徂隰徂畛	수많은 사람이 밭갈고 김매러 진펄로 밭둔덕 길로 나아가네
侯亞侯伯，侯亞侯旅	가장과 만아들과 작은 아버지와 자제들과
侯彊侯以，有嘏其饁	품앗이꾼과 일꾼들이 맛있게 들밥을 먹는데
思媚其婦，有依其士	밥 날라온 아름다운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을 위로해 주고
有略其耜，俶載南畝	남편을 날카로운 쟁기로 양지 밭을 갈기 시작하네

6) 褚斌杰, 《詩經與楚辭》(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 46쪽 참조.

7) 《毛詩鄭箋》(枝相臺岳氏本, 臺北: 新興書局, 1993년), 141쪽: “載芟, 春藉田而祈社稷也.”

播厥百穀, 實函斯活 여러 가지 곡식 씨뿌리어, 곡식이 흙기운에 자라나니  
 驛驛其達, 有厭其傑 뽕족뽕족 싹이 솟아 아름답게 자라나고  
 厭厭其苗, 緜緜其廩 곡식 싹 무성하니 정성껏 김매 주네

풀을 베고 나무를 뽑고 땅을 갈며, 대 가족이 힘을 모아 경작을 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시 중에서 구사한 '載(밭일을 하는 것)', '耦(쟁기로 밭을 가는 것)', '庶(김을 매는 것)', '飮(들밥 먹는 것)' 등의 시어는 노동의 장면을 매우 생동감 있게 재현해 주고 있다. 이밖에, “날카로운 좋은 보습으로 양지 밭을 갈아엎고, 여러 가지 곡식 씨 뿌리니 곡식이 흙 기운에 자라나네(粃粃良耜, 俶載南畝. 播厥百穀, 實函斯活.)”라고 노래한 <周頌·良耜>, “커다란 밭에 농사 많이 지으니 씨 고르고 농구 갖춰, 농사일 다 준비하고, 날카로운 쟁기로, 남쪽 밭에 일을 시작하여 여러 곡식 씨 뿌리네.(大田多稼, 既種既戒. 既備乃事, 以我覃耜. 俶載南畝, 播厥百穀)”라고 읊은 <小雅·大田>, “농부들을 거느리고 여러 곡식을 심게 하오.(率時農夫, 播厥百穀)”라고 노래한 <周頌·噫嘻> 등은 모두 노동의 장면을 짙진하게 묘사한 부분들이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후대 중국의 이른바 田園詩 속에서 등장하는 田園 혹은 농경 생활에 대한 묘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즉, “비록 秦朝 이후에도 많은 시가들이 농업을 언급하고 있을 지라도, 그러한 시가들이 더욱 중시했던 것은 시가의 意境, 즉 '전원생활'의 意境이었으며, 그들은 농업의 노동 그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sup>8)</sup>

### (3) 狩獵과 漁撈

《시경》 속의 생산 노동 가운데 狩獵과 漁撈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8) 王新建, <先秦農事詩的社會及技術信息研究> (《唐都學刊》, 2003年第3期, 54쪽): “雖然秦朝以後也有許多詩歌涉及到農業, 但那些詩歌更注重的是詩歌的意境, 是田園生活的意境, 他們不關心農業勞動本身.”

물론 《시경》의 시대는 야생 수렵의 시기를 벗어나 고도의 농경 사회로 진입한 이후지만, 수렵과 어로는 여전히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이었다. 먼저 《시경》 속에 보이는 수렵의 형태로 <小雅·吉日>을 예로 든다.

瞻彼中原, 其祁孔有	저 언덕 바라보니 짐승이 우글우글 많기도 하네
儻儻俟俟, 或群或友	뛰는 놈에 서성대는 놈, 떼를 짓기도 하고 짝을 짓기도 하네
悉率左右, 以燕天子	오른편 왼편에서 모두 몰아다 천자님을 즐겁게 해드리네
既張我弓, 既挾我矢	활줄을 잡아당기고 화살을 낀 다음
發彼小豮, 殪此大兕	작은 암돼지도 쏘고 큰 들소도 잡아
以御賓客, 且以酌醴	손님을 접대하며 좋은 술도 따르네

전체 24구 가운데, 후반부 12구의 내용이다. 《毛詩序》에서는 “<吉日>은 宣王의 사냥을 찬미한 것이다.”<sup>9)</sup>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시는 “천자의 사냥을 형용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천자가 宣王이 틀림이 없다는 증거는 없다”<sup>10)</sup> 눈에 띄는 점은, 시 속에 보이는 사냥의 전개 과정이 매우 씩진하며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동짓달엔 짐승사냥 하는데, 여우와 살쾡이 잡아, 공자님 갓옷 지어 드리네(一之日于貉, 取彼狐狸, 爲公子裘)”라고 읊은 <豳風·七月>, “활각지와 팔찌 써서 활과 화살 고르고, 활쏘던 사람들 다 모여 짐승 쌓기를 거드네(決拾既佽, 弓矢既調. 射夫既同, 助我舉柴)”라고 노래한 <小雅·車攻>, “나가 돌아다니며 오리나 기러기 주살로 쏘아 볼까(將翱將翔, 弋鳧與鴈)”라고 밝힌 <鄭風·女曰鷄鳴>은 모두 수렵과 관계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시경》 속에는 漁撈의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도 있다. 다만 직접적이며 전면적인 漁撈에 대한 묘사는 보이지 않고, 몇 편의 詩作에서 간접적인 묘사가 시의 중간 중간에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周頌·潛>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9) 《毛詩鄭箋》: “吉日, 美宣王田也.”(70쪽)

10) 屈萬里, 《詩經詮釋》: “此自是美天子田獵之詩, 維天子是否爲宣王, 未能遽定.”(325쪽)

猗與漆沮，潛有多魚 아아 漆沮수엔 물속에 고기가 많네  
 有鱸有鮪，鱓鱧鰕鯉 전어며 유어가 있고 피라미며 날치며 메기며 잉어가 있네  
 以享以祀，以介景福 이를 잡아 제물로 삼아 제사지내며 큰 복을 비네

《毛詩序》에서 “<潛>은 季冬(12월)에 물고기를 올리고, 봄에 유어를 올리는 시이다.”<sup>11)</sup>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는 봄과 겨울에 물고기를 제물로 바치며 제사할 때 사용한 樂歌로 볼 수 있다. 사실, 《시경》 속에 보이는 '물고기(魚)'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위의 경우처럼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宴會에 사용되는 것이다. “물고기가 통발에 걸렸는데, 날치와 모래 무지 같은 걸세. 군자에게 술이 있는데, 맛 좋고도 풍성하네(魚麗于罶, 鱸鯈, 君子有酒, 旨且多)”라고 읊은 <周頌·魚麗>는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철석철석 건어 올리는 고기 그물에서는 잉어 붕어가 팔닥거리네(施罟濊濊, 鱮鮪發發)”라고 노래한 <衛風·碩人>, “기다란 대막대 들고, 기수에서 낚시질을 하네(籊籊竹竿, 以釣于淇)”라고 노래한 <衛風·竹竿>, “가는 고기그물에 송어와 빙어가 걸려있네”(九罭之魚, 鱗魴)라고 읊은 <邠風·九罭> 등은 모두 漁撈의 장면을 묘사한 예로 볼 수 있다.

## (5) 기타

《시경》 속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들을 제외하고, 家事, 紡績, 伐木, 牧畜 등의 일상의 경제활동 내지는 생산노동이 더러 눈에 띈다. 먼저 <鄭風·緇衣>의 한 단락을 예로 든다.

緇衣之席兮      검은 옷이 참 점잖네  
 敝子又改作兮      헤어지면 내 다시 맞추어 드리리다  
 适子之館兮      당신이 등청하셨다가

11) 《毛詩鄭箋》: “潛, 季冬薦魚. 春獻鮪也.”(139쪽)

還子授子之粢兮 돌아오면 내 당신에게 음식을 차려 올리지요

이 시에 대해 《毛詩序》에서는 “<緇衣>는 武公을 기린 것이다. 무공 父子는 모두 周나라의 司徒가 되어 그 직책을 잘 수행하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 덕을 찬미하여 나라를 소유하고 좋은 직책을 잘 닦은 공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sup>12)</sup>라고 언급했다. 흥미로운 것은, 武王에 대한 찬미와 애호를 두 가지의 노동으로써 표현했다는 점이다. 즉, 관복인 검은 옷이 헤어지면 다시 지어서 입혀 줄 것이며, 퇴청한 후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겠다는 것이다. 옷을 지어주고, 음식을 차려주는 노동이야 말로 가장 극진한 배려가 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牧畜의 장면을 묘사한 <小雅·無羊>을 살펴보자.

誰謂爾無羊	누가 그대에게 양이 없다던가?
三百維群	삼백 마리의 떼가 있는데
誰謂爾無牛	누가 그대에게 소가 없다던가?
九十其犝	검은 입술의 소가 아홉 마리나 되는데
爾羊來思, 其角濈濈	그대의 양이 오는 것을 보니, 그 뿔들이 득실득실하네
爾牛來思, 其耳濕濕	그대의 소가 오는 것을 보니, 그 귀들이 움찔움찔하네
或降于阿, 或飲于池	혹은 언덕을 내려가고 혹은 못에서 물을 마시고
或寢或訛	혹은 자고 혹은 움직이네
爾牧來思, 何蓑何笠	그대의 목동이 오니, 도롱이를 쓰고 삿갓을 썼으며
或負其餼	혹은 그 밥까지 메고 오니
三十維物	서른 가지 색을 다 갖췄으니
爾牲則具	그대는 모든 제물을 다 갖추었구나

《毛詩序》에서 “<無羊>은 宣王이 가축을 잘 기름을 읊은 시이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것이 정말 宣王을 찬미한 것인 가는 확실히 알 수 없어도, 시의 내용에는 牧畜에 성공하여 소와 양이 매우 많고 이로 인해 풍요롭고 정다운

12) 《毛詩鄭箋》: “緇衣, 美武公也. 父子并爲周司徒. 善於其職. 國人宜之. 故美其德. 以明有國善善之功焉.”(30쪽)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밖에, “나무 베는 소리 쨍쨍 울리고, 새들은 짹짹 우네(伐木丁丁, 鳥鳴嚶嚶)”라고 노래한 <小雅·伐木>, “제거하고 베니, 꾸지뽕나무와 산뽕나무로다(攘之剔之, 其槩其柘)”라고 읊은 <大雅·皇矣>는 모두 벌목의 장면을 묘사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 3. 《詩經》 속 노동 표현의 특색과 예술성

上述한 바와 같이, 《시경》 속에는 다양한 생산 노동의 표현이 산재해 있다. 들판의 나뭇을 채집하는 가벼운 노동부터, 사냥, 漁撈, 목축 등의 생산 노동 및 《시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인 農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동의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물론 이러한 노동의 면면을 통해 당시의 경제, 사회, 문화의 일면을 조명해 볼 수 있음은 자명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의 표현이 《시경》이라는 시가 작품에 특수한 예술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노동 표현의 특색과 예술성을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1) '생산노동'을 통한 '功利審美'의 표현

중국의 현대 미학 사상가인 李澤厚(1930-)는 “《說文解字》에 근거하면, ‘양(羊)이 큰(大) 것이 아름다운 것(美)이다’라고 했는데, 양이 살찌고 크게 자란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여긴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움(美)’은 감성의 존재나 혹은 사람의 감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나 즐기는 것(맛있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sup>13)</sup>라고 언급한 바 있다.

13) 李澤厚, 《美學四講》(臺北: 三民書局, 1996年, 39쪽): “根據《說文解字》, 認爲羊長得很肥

그런데 이러한 ‘功利審美’<sup>14)</sup>의 관점은 적어도 《詩經》의 審美意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듯하다. 실제로 근래의 연구 성과 가운데 <詩經的審美意識-兼論其文化淵源與美學影響>에서는 《詩經》이 내포한 몇 가지 審美 가운데 하나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이를 종합하면, 큰 것이 아름답고, 위풍당당하고 힘이 센 것이 아름다우며, 왕성한 생식 능력을 아름답게 여기는 ‘양이 큰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功利 심미관념은 《詩經》 시대의 생산력 수준과 사회 역사의 조건 그리고 전체 문화 환경으로부터 결정된 역사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總之, 以碩大爲美, 以孔武有力爲美, 以旺盛的生殖能力爲美等‘羊大爲美’의 功利審美觀念, 是由詩經時代的生產力水平, 社會歷史條件乃至整個文化環境所決定的歷史必然現象.)<sup>15)</sup>

실제로 《詩經》 속에서는 ‘크고’, ‘위풍당당하며’, ‘왕성한 생식능력’ 등의 모양과 상태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크고’, ‘위풍당당하며’, ‘왕성한 생식능력’의 속성은 生命을 보존하거나 生命의 연속성을 보장하기에 유리한 조건임은 자명하다. 자신이나 種族의 生命을 유지하고 번성시키기에 보다 유리한 모습이나 행위가 바로 ‘아름답다(美)’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詩經》 속에서는 ‘생산노동’을 讚美하고 이를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詩篇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周頌·良耜>을 살펴보자.

爰爰良耜, 俶載南畝      날카로운 좋은 보습으로 양지 밭을 갈아엎고  
播厥百谷, 實函斯活      여러 가지 곡식 씨뿌리니 곡식 흙기운에 자라나네

大就美. 這說明, 美與感性存在, 與滿足人的感性需要和享受(好吃)有直接關係.”

14) 물론 이러한 功利性이 강한 審美觀은 19세기 이후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 등의 서양의 美學家들로부터 ‘美는 功利性이 없어야 절대적인 美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또한 절대적인 美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李澤厚는 《美的歷程》에서 중국의 역사단계별로 ‘功利審美’를 피력하였다. (李澤厚, 《美的歷程》(臺北: 三民書局, 1996) 참조.)

15) 陳志霞, <詩經的審美意識-兼論其文化淵源與美學影響>(《青海師範大學學報》, 2003, 第6期, 112쪽)

或來瞻女，載筐及筥	어떤이 와서 그대를 돌보는데 모난 광주리 둥근 광주리에
其饌伊黍	기장밥 지어다 주네
其筥伊紉，其罇斯趙	삿갓 동여 쓰고 호미로 푹푹 파며
以薺茶蓼	잡초들을 뽑아내네
茶蓼朽止，黍稷茂止	잡초들이 시드니 곡식 싹이 무성해 지네
獲之挈挈，積之栗栗	써걱써걱 곡식을 베어 수북이 쌓아 놓으니
其崇如墉，其比如櫛	높기가 성벽 같고 빗살처럼 줄지어 섰고
以開百室	모든 집들 곡식 실어들이네
百室盈止，婦子寧止	모든 집에 곡식이 차니 처자들이 편히 먹고 사네
殺時特牲，有捋其角	누런 소를 잡아보니 그 뿔만이 구부정하네
以似以續，續古之人	제사를 계승하며 옛 분들의 뜻을 잇네

《毛詩序》에서는 “<良耜>는 가을에 社稷에 보답하는 제사를 올리는 시이다”<sup>16)</sup>라고 언급했다. 가을의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해 주는 農耕의 장면을 노래하며 社稷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즉, 거의 전편에 걸쳐 묘사한 農耕의 장면은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勞動을 통한 生産이야말로 民族의 生命을 보존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노동은 신성하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어서 <鄭風·大叔于田>의 제1장을 살펴보자.

大叔于田，乘乘馬	숙이 사냥을 가는데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탔네
執轡如組，兩驂如舞	고삐 잡은 솜씨는 비단실 다루듯, 두 참마는 춤을 추는 듯
叔在藪，火烈具舉	숙이 늪에 드니 불꽃이 활활 한꺼번에 오르네
禮褻暴虎，獻于公所	옷통을 벗고 맨손으로 범 잡아 임금님께 바쳤다네
叔將無狂，戒其傷女	숙께서는 너무 자주 마시기를, 당신 다칠까 조심스럽네

屈萬리는 “이것 역시 共叔段을 讚美하는 시이다.”<sup>17)</sup>라고 언급했다. 주의할 것은, 讚美하는 내용이 주로 사냥하는 용감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써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시경》 시대가 이미 농경위주의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

16) 《毛詩鄭箋》：“良耜，秋報社稷也。”(142쪽)

17) 屈萬里，〈詩經詮釋〉：“此亦美共叔段之詩。”(137쪽)

되었다 할지라도, 狩獵은 먹거리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생산 노동이었던 동시에 군사 훈련을 위한 좋은 방편이었다. 따라서 사냥을 잘한다는 점은 좋은 먹거리 내지는 훌륭한 군대를 보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석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위의 시 속에서 표현된 생산을 위한 사냥의 노동에는 이러한 功利審美觀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토끼 그물을 치는 모습을 묘사하며, 武人을 아름답게 찬미한 <周南·兔置>, 사냥하는 모습을 통해 頌美의 뜻을 엿보인 <鄭風·叔于田>, 耕農의 생산 노동을 풍요롭게 묘사하며 사직에 제사를 올리는 <周頌·載芟> 등은 모두 그 바탕에 功利的 審美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노동의 과정을 통한 감정의 표출

《시경》 속에 표현된 노동의 묘사가 내포하는 또 하나의 특색은, 노동의 과정을 통해 시인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노동을 통한 功利審美의 표현도, 사실은 노동의 원만한 완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앞 절에서 살펴본 <周頌·良耜>, <鄭風·大叔于田> 외에도, <小雅·信南山>, <小雅·甫田>, <小雅·大田> 등은 모두 성공적인 農耕의 과정을 통해 풍요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앞장에서 예로 든 <小雅·無羊> 역시 성공한 목축을 통해 頌美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시편에 걸쳐 采, 掇, 捋, 芻 등의 반복되는 채집의 노동을 표현하며 정겹고 아름다운 풍속을 드러낸 <周南·芣苢> 역시 모두 노동의 과정을 통해 풍요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는 상반되게 성공하지 못한 노동을 통해서는 不滿과 傷念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小雅·采芣>을 살펴보자.

終朝采芣, 不盈一掬 아침 내내 녹두를 땀어도 한줌도 차지 않네

子發曲局, 薄言歸沐	내 머리 뒤엎겼으니 돌아가 머리카 감을까
終朝采綠, 不盈一擔	아침 내내 남초 켜으나 앞치마 한 자락에도 차지 않네
五日爲期, 六日不詹	닷새 날을 기약했으나 엿새가 되어도 오지 못하네
之子于狩, 言韞其弓	우리 님 사냥 하신다면 활을 활집에 넣어드리고
之子于釣, 言綸之繩	우리 님 낚시 하신다면 낚시줄을 간추려 드리리
其釣維何, 維魴及鱈	어떤 것을 낚던가? 방어와 연어일세
維魴及鱈, 薄言觀者	방어와 연어를 구경이나 할까!

《毛詩序》에서는 “<采綠>은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음을 원망하는 것을 풍자한 시이다. 幽王 때에는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음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sup>18)</sup>라고 했다. 전반부 4구는 멀리 떨어진 남편은 약속한 기일이 되도 돌아오지 않음을 나타냈고, 후반부 4구는 상상의 묘사로 남편이 어디를 가든 꼭 함께 하며 정을 나누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제1구와 3구에서 녹두와 남초를 캐어도 한줌 혹은 한 자락도 캐지 못하는 실패한 노동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이별한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 속의 傷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採集의 실패는 곧 傷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周南·卷耳>를 살펴보자.

采采卷耳, 不盈頃筐	도꼬마리 뜯고 또 뜯어도 납작바구니에도 차지 못하네
嗟我懷人, 寘彼周行	아아 내 그리운 님 생각에 바구니도 행길 위에 내 던지네
陟彼崔嵬, 我馬虺隤	높은 산에도 오르려 하나 내 말 병이 났네
我姑酌彼金罍	에라, 금잔에 술이나 따라
維以不永懷	기나긴 회포 잊어 볼까
陟彼高岡, 我馬玄黃	높은 언덕이라도 오르려 하나 내말이 병들었네
我姑酌彼兕觥	에라, 쇠뿔 잔에 술이나 부어
維以不永傷	기나긴 시름 잊어 볼까
陟彼阻矣, 我馬瘠矣	돌산이라도 오르려 하나 내말이 지쳐 늘어졌고
我僕痡矣, 云何吁矣	내 하인 발병 났으니 어떻게 하면 그대 있는 곳 바라볼까!

屈萬리는 “이것은 마땅히 行役者가 집을 그리워하는 시이다. 첫째 章은 가족

18) 《毛詩鄭箋》: “采綠, 刺怨曠也. 幽王之時, 多怨曠者也.”(100쪽)

이 자신을 그리워하며 겪는 괴로움을 서술한 것이다”<sup>19)</sup>라고 언급했다. 즉, 첫째 章에서는 들판에서 나뭇을 뜯어도 바구니에 한 가득 채울 수 없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보고 싶어도 상대를 볼 수 없는 자신의 그리운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이 역시 採集의 실패를 통해 여의치 않은 시인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小雅·大東>에서는 “일곱 번이나 배틀에 오르나 천은 짜지 못하고(雖則七襄, 不成報章)”, “남쪽에 키 같은 기성이 있으나, 곡식을 까부를 수는 없네(維南有箕, 不可以簸揚)”라고 노래하며 “어지러움을 풍자한 것”<sup>20)</sup> 역시 노동의 불발로 여의치 못한 감정을 표출한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 (2) 노동을 통한 ‘起興’ 작용

주지하다시피, 《시경》의 창작 기법으로서의 ‘興’의 논의는 《毛詩序》에서 이른바 ‘六義’ 說을 언급한 이후로, 摯虞(240?-311), 鍾嶸(468?-518)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朱熹가 《詩集傳》에서 “興은 먼저 다른 사물을 말하여 읊은 말을 일으키는 것이다”<sup>21)</sup>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詩經》의 창작 기법으로서의 ‘興’은 “시의 첫 구절이나 첫 장을 시인이 본 주위의 사물이나 경물로 먼저 묘사하고 그로부터 다음의 서정적인 내용을 유도해내는 표현 수법으로 알려져 왔다.”<sup>22)</sup> 실제로 《시경》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시인이 눈으로 본 주위의 동물이나 식물 등을 이용하여 ‘興’의 작용을 일으키는 작품이 허다하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경》의 적지 않은 詩篇에서 앞서 살펴본 노동의 동작이 ‘興’을 일으키는 매개로

19) 屈萬里, 《詩經詮釋》: “此當是行役者思家之詩. 首章述家人思己之苦.”(8쪽)

20) 《毛詩鄭箋》: “大東, 刺亂也.”(85쪽)

21) 朱熹, 《詩集傳》: “興者, 先言他物, 以引起所詠之詞也.”(2쪽)

22) 김근, <賦·比·興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中國語文學誌》, 第25輯, 258쪽)에서 인용.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경》 속에는 전체의 내용이 이별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주지로 삼거나, 혹은 손님을 접대하고 제사를 지내는 내용을 주지로 삼는 것 일지라도, 처음 도입 부분에서는 采集, 伐木, 漁撈 등의 일상의 노동을 삽입함으로써 '起興'의 예술 효과를 추구하는 詩篇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周南·關雎>을 살펴보자.

參差荇菜, 左右流之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헤치며 뜰노라니
窈窕淑女, 寤寐求之	아리따운 고운 아가씨, 자나 깨나 그리웁네
求之不得, 寤寐思服	그리어도 얻지 못해 자나 깨나 생각노니
悠悠哉哉, 輾轉反側	그리웁은 가이 없어,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屈萬리는 “이것은 新婚을 祝賀하는 시이다. ... 2章은 淑女를 그리워함에 절절함을 말한 것이다”<sup>23)</sup>라고 언급했다. 또한 朱熹는 《詩集傳》에서 “興이다. ... 이 章은 그 배필을 얻지 못했을 때를 근본하여 말한 것이다. 저 들쭉날쭉한 荇菜는 마땅히 좌우로 일정한 방향 없이 채집할 것이요, 이 요조숙녀는 마땅히 자나 깨나 잊지 않고 구해야 한다.”<sup>24)</sup>라고 했다. 즉, 일정한 방향 없이 열심히 채집해야 하는 나물채집의 동작으로 자나 깨나 잊지 말고 열심히 요조숙녀를 구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물을 캐는 동작으로써, 그 뒤에 올 내용을 연상시키는 것으로는 <魯頌·泮水>, <魏風·汾沮洳>, <小雅·采薇>, <小雅·采芣> 등의 예를 더 들 수 있다.

이어서 <小雅·伐木>를 살펴보자.

伐木丁丁, 鳥鳴嚶嚶	나무 베는 소리 짹짹 울리고, 새들은 뽁뽁 울면서
出自幽谷, 遷於喬木	깊은 골짜기에서 날아와 큰 나무로 날아가네
嚶其鳴矣, 求其友聲	뽁뽁 우는 것은 자기 벗 찾는 소리지
相彼鳥矣, 猶求友聲	새들을 봐도 벗을 찾는 소리 내거늘
矧伊人矣, 不求友生	하물며 사람이 친구를 찾지 않겠는가

23) 屈萬里, 《詩經詮釋》: “此祝賀新婚之詩. ... 二章言思淑女之切.”(4쪽)

24) 朱熹, 《詩集傳》: “興也. 此章本其未得而言, 彼參差之荇菜, 則當左右無方以流之矣. 此窈窕之淑女, 則當寤寐不忘以求之矣.”(2~3쪽)

神之聽之，終和且平 삼가 벗과 잘 어우리면 모두 화평케 되리라

《詩集傳》에서는 “興이다. 丁丁은 나무를 베는 소리요, 嚶嚶은 새소리가 화답하는 것이다. … 이것은 친구나 오래 사귄 사람들을 잔치할 때 부르던 노래이다. 그러므로 나무 베기를 ‘쨍쨍(丁丁)’하게 함으로써 새의 울음이 ‘찍찍(嚶嚶)’하게 興하여 새가 벗을 찾음을 말하였고, 마침내 새가 벗을 찾음으로써 사람이 벗이 없어서는 안 됨을 비유하였다.”<sup>25)</sup>라고 했다. 즉, 시의 처음에서 쨍쨍 울리며 나무 찍어대는 동작을 통해 ‘起興’의 수법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漁撈의 활동으로 興의 작용을 도모한 <小雅·魚麗>를 살펴보자.

魚麗于罟，鱸鯨	물고기가 통발에 걸렸는데, 날치와 모래무지 같은 걸세
君子有酒，旨且多	군자에게 술이 있는데 맛 좋고도 풍성하네
魚麗于罟，魴鱧	물고기가 통발에 걸렸는데, 방어와 가물치 같은 걸세
君子有酒，多且旨	군자에게 술이 있는데 풍성하고도 맛이 좋네
魚麗于罟，鰓鯉	물고기가 통발에 걸렸는데, 메기와 잉어 같은 걸세
君子有酒，旨且有	군자에게 술이 있는데 맛 좋고도 많다네

총 6章 가운데 앞 3章의 부분이다. 《詩集傳》에서는 “興이다. … 이것은 잔치에 통용하는 樂歌이니, 잔치에 올리는 음식을 가지고서 그 아름답고 또 많음을 지극히 말하여, 주인의 예의가 부지런하여 손님을 우대함을 나타낸 것이다.”<sup>26)</sup>라고 언급했다. 각종 물고기를 통발로 잡는 장면 자체가 매우 풍성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며, 바로 이러한 풍성한 이미지는 興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손님을 접대하는 극진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고기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것으로써 ‘興’을 일으킨 것으로 <邶風·新臺>를 예로 더 들 수 있다.

25) 朱熹, 《詩集傳》: “興也. 丁丁, 伐木聲. 嚶嚶, 鳥聲之和也. … 此燕朋友故舊之樂歌. 故以伐木之丁丁, 興鳥鳴之嚶嚶, 而言鳥之求友. 遂以鳥之求友, 喻人之不可無友也.”(121쪽)

26) 朱熹, 《詩集傳》: “興也. … 此燕饗通用之樂歌. 卽燕饗所薦之差, 而極道其美且多, 見主人禮意之勤, 以優賓也.”(128쪽)

## 4. 결어

《詩經》의 내용 속에는 현실의 물질생활을 영위하는 '生産勞動'의 장면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즉, 《詩經》 시대의 일상 경제생활에 속하는 農耕을 비롯하여, 아녀자들의 손에 의해 쉽게 이루어지는 採集, 혹은 周代의 훨씬 이전부터 행해져 오던 狩獵과 漁撈 등의 노동이 시의 곳곳에서 보여 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곳에서 눈에 띄는 採集의 노동은 다양한 採集物을 다양한 목적을 위해 폭 넓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민간 아녀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행위로 표현되었으며, 이런 연유로 주로 <國風>과 <小雅>에 집중적으로 수록되었다. 또한 《詩經》 시대는 農業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 경제로 삼았던 까닭에 농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先祖의 덕을 頌美하거나 그 선조를 제사지내는 내용들을 <周頌>과 <二雅>에서 적극 표현했으며, 이러한 연유로 耕農의 묘사는 특히 이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보이게 된다.

한편, 먼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狩獵, 漁撈, 牧畜 그리고 일상의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家事, 紡績 혹은 伐木 등의 생산노동 역시 시의 곳곳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詩經》에서 표현된 생산노동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功利審美'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서, 《詩經》에서 표현된 채집, 농경, 어로, 수렵 등의 생산노동은 種族의 생명을 永續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신성한 행위이며 동시에 훌륭한 행위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시인의 잠재의식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詩經》 속에서 표현된 생산노동은 기본적으로 풍요롭고 화평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한편, 《시경》 속에 표현된 노동의 묘사는 또 다른 특색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의 과정을 통해 시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 속에서 표현된 원만한 생산노동은 아름답고 화평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던 반면, 성공하지 못한 노동들을 통해서서는

不滿과 傷念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던 것이다. 노동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감정으로 전달되었던 셈이다. 게다가, 《시경》 속에 표현된 노동의 묘사는 ‘起興’이라는 훌륭한 예술 작용도 하고 있었다. 사실, ‘興’은 《시경》의 창작 기법 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인데, 주로 動物과 植物의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부의 詩篇에서는 노동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興’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周南·關雎>, <魏風·汾沮洳>, <小雅·采芣> 등의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결국, 《시경》 속에는 다양한 생산노동의 묘사가 많은 부분에서 폭넓게 전개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의 묘사는 기본적으로 功利의 審美를 내포하며 아울러 ‘起興’의 작용까지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산노동’의 표현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는 것은, 《시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시경》 이후에는 생산노동의 표현이 詩歌 속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시의 창작 주체가 민간에서 문인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文人化’의 길을 걷게 된 중국의 시가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 < 參考文獻 >

- 《毛詩鄭箋》, 校相臺岳氏本, 臺北: 新興書局, 1993.  
 孔穎達, 《毛詩正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朱熹, 《詩集傳》, 南京: 鳳凰出版社, 2007.  
 屈萬里, 《詩經詮釋》, 臺北: 商務印書館, 1981.  
 葉慶炳, 《中國文學史》, 臺灣, 學生書局, 1994.  
 蕭華蓉, 《中國詩學思想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李澤厚, 《美學四講》, 臺北: 三民書局, 1996.  
 李澤厚, 《美的歷程》, 臺北: 三民書局, 1996.  
 김학주 譯著, 《詩經》, 서울: 명문당, 2007.

褚斌杰, 《詩經與楚辭》,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

張慶利, <詩經農事詩的美學意義>, 《綏化師專學報》, 1994年, 第4期.

劉貴華, <先秦狩獵詩論>, 《沈陽師範學院學報》, 2001年, 第6期.

王新建, <先秦農事詩的社會及技術信息研究>, 《唐都學刊》, 2003年, 第3期.

陳志霞, <詩經的審美意識-兼論其文化淵源與美學影響>, 《青海師範大學學報》, 2003年, 第6期.

김근, <賦·比·興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中國語文學誌》, 2007年, 第25輯.

莫玉逢, <詩經采摛詩研究>, 《晉中學院學報》, 2008年, 第2期.

付紅霞, <籍田禮與詩經雅頌中的農事詩>, 《世界文學評論》, 2009年, 第1期.

### < 中文提要 >

《詩經》內容中多包含着生產勞動之描寫. 其種類可分為採集, 農耕, 狩獵, 漁撈, 牧畜, 伐木, 家事等. 其中, 採集勞動主要表現于<國風>及<小雅>之作, 而農耕勞動主要見于<大雅>與<頌>之作. 應注意的是, 此種生產勞動之描寫一般往往是基于功利審美觀的. 換言之, 在詩經作者眼中, 生產勞動乃為'美'的表現. 而且, 《詩經》通過生產勞動之過程, 顯示出詩人之感情. 此外, 《詩經》中之生產勞動描寫在詩文的頭序之中起了所謂'興'之作用. 由此可知, 對於《詩經》中生產勞動之描寫深層探討, 是了解《詩經》之不可忽視的一環.

關鍵詞: 詩經, 功利審美, 勞動, 採集, 農耕, 起興, 先秦詩歌.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 3. 31	2010. 4. 30	2010. 5. 6	2010. 5. 7	2010. 5. 31